

간부회의 생중계로 시정 운영 투명성 높인다

전주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전 9시 간부회의 생중계 정례 운영 추진

전주시가 주요 시정 현안을 논의하는 간부회의를 생중계하는 등 시민들과 시정 운영 과정을 공유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31일 오전 9시 전주시청 8층 재난상황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간부회의를 생중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간부회의 생중계는 주요 정책과 현안의 추진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 누구나 PC나 스마트폰으로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접속해 메인 화면의 '시정 주요업무 보고

LIVE' 배너 또는 팝업창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회의는 시장과 부시장, 실·국장, 직속부서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약 60분간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실·국별 주요 현안과 업무 추진 상황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고, 주요 사업의 쟁점 사항과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 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은 "간부회의 생중계는 회의 결과만 알리는 데서 나아가 주요 시정 현안이 검토되고 논의되는 과정까지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시정을 보다 가깝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26일 전주시청 3층 시민소통공간에서 '2026년 2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나눔 기쁨 실천 우수봉사자 시상

전주자봉센터, 5명 자원봉사자 · 1개 단체 전주시장 표창 수여

평소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실천해온 전주시민 5명과 1개 단체가 '천사도시' 전주를 빛낸 으뜸자원봉사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26일 전주시청 3층 시민소통공간에서 '2026년 2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열고, 평소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일반인 4명과 청소년 1명 등 총 5명의 자원봉사자와 1개 단체에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으뜸자원봉사자는 1365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 등록된 25만여 명의 전주시 자원봉사자 중 분기별로 자원봉사 △활동 횟수 △봉사 시간 △참여 연수 등의 평가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또, 정성평가 부분의 경우 자원봉사 문화 확산 등에 기여도가 높은 봉사자 중 특별한 분야에서 우수함을 보인 봉사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먼저 일반인 부문에서는 △전주 덕진경찰서 범죄예방 야간 순찰 및 대한적십자사 음식·의류 나눔 등 생활 지원 활동을 펼친 채봉

덕 씨(72세, 여) △전주온빛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이동 지원을 도맡아 온 박치숙 씨(61세, 여) △진북동 제2초소 자율방범활동과 전주시 어진박물관 안내데스크에서 관람객 응대 봉사를 실천해 온 박정수 씨(73세, 남) 등 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청소년 부문에서는 파랑주 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 말벗 서비스와 활동보조 봉사를 성실히 이어나온 이효범 군(16세, 남)이 전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특히 정성평가 외국인 부문에서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종합민원실 민원 안내 봉사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온 후 사요광 씨(46세, 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이날 시상식에서는 농촌 마을 일손 돕기와 혁신도시 일대 플로깅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꾸준히 힘써온 한국농수산대학교 봉사단체인 '심봉사' (대표 최진강)가 단체 부문 수상자로 결정돼 시장 표창을 받았다.

/이만호 기자

‘초고령사회, 지역맞춤형 은퇴자마을 모델을 묻다’

전주시정연구원 · 한국주택학회,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계기 공동 포럼 개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은퇴자마을'의 지역맞춤형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전주시정연구원과 (사)한국주택학회(회장 진창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오후 2시, 전주소통협력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초고령사회, 지역맞춤형 은퇴자마을 모델을 묻다'를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공포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춰 지방대도시연구원과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모델 도입'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먼저 정연우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주거모델, 은퇴자마을'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따른 주거 수요의 변화와 은퇴자마을



(재)전주시정연구원과 (사)한국주택학회는 26일 오후 2시, 전주소통협력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초고령사회, 지역맞춤형 은퇴자마을 모델을 묻다'를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의 필요성, 은퇴자마을에 대한 선호도와 유형, 지불의향 금액 등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은퇴자마을 구상안을 제시했다.

이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대학 연계형 은퇴자 공동체(UBRC) 모델과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 연구센터장은 대학이 보유한 의료·건강, 평생교육, 사회참여 등의 자원을 연계 하는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 모델을 중심으로, 고령자들이 희망하는 서비스와 조성 위치에 따른 거주 의향, 대학의 참

여 수준 등을 검토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UBRC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 이후에는 진창하 (사)한국주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송해근 전주대학교 평생학습지원센터장, 유선중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윤혜영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남숙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정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은퇴자마을의 주거정책적 의미와 지역사회 연계 방안, 대학과의 협력 모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전주시정연구원은 이날 포럼에 앞서 (사)한국주택학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송천동 도매시장 화재 복구 성금 이어져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시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피해 상인들을 향한 지역사회의 온정의 손길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26일 전주부시장실에서 대한전민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 (사)한국새농민 전주완주시군회 등 4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동 화재 피해 복구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4개 단체는 △대한전민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500만 원 △전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 300만 원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200만 원 △(사)한국새농민 전주완주시군회 100만 원 등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성금 총 1100만 원을 전주시에 기탁했다.

성금은 화재 피해를 입은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동 상인 17명의 시설 복구와 조속한 생계 안정을 위해 균등 지급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공한지 주차장 환경정비

전주시 완산구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공간을 직접 찾아 환경을 정비하며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완산구는 26일 서부신시가지 효자로 일원 공한지 주차장에서 직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잡초 제거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민선 9기 전주시의 시정 방향인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를 시민 생활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완산구 현장 행정의 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직원들은 2개 조로 나눠 여름철 무



성하게 자란 풀을 제거하고 주차장에 버려진 담배꽂이와 음료컵 등을 수거했다.

특히 수거한 쓰레기는 현장에서 청소차를 이용해 즉시 처리하는 등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3분기 주거비 지원 접수

전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통해 '2026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3분기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피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거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실제 부담한 주택 관련 대출이자 또는

월세로, 매월 최대 25만 원, 최대 1년간 300만 원까지 분기별 심리비 지원한다.

또한 대출이자·월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임차인에게는 긴급생계비를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긴급생계비는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다음 달 20일 지급한다. 단, 대출이자·월세 지원과 긴급생계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과도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자연

전주매일 캠페인

고유생물의 서식지

고창 갯벌

고창갯벌은 곰소만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갯벌로 세계 최고수준의 저서규조류 생물종을 보인다. 또한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최대 서식지로 유명하다.

고창갯벌은 약 184종의 저서규조류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바지락과 동족이 서식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고창갯벌은 100여 종, 20만 마리의 물새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중 IUCN 적색목록 2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EN등급)인 황새의 국내 최대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 세계 1종 1속만 존재하는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 고창갯벌에는 펴갯벌 위에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사질 퇴적체인 셰니어(Chener)가 관찰된다. 셰니어는 자갈, 조립질 모래와 조개껍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의 영향을 받아 육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셰니어는 펴갯벌에 둘러싸여 있으며, 바닷물에 잘 잠기지 않아 철새들의 동지와 휴식처의 역할을 수행한다.

출처: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